

弘文館考 〈抄錄〉

A Study on the HongmunKwan

朴 永 俊*

小論은 李朝時代에 있어서 多様하고 複合的인 機能들을 가진 官司였던 弘文館의 全貌를 可能的 限 그 實體에 加감도록 再現해 보려고 試圖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弘文館志를 中心으로 여러 參考文獻과 資料들을 涉獵하면서 이에 關한 記錄들을 抄出하여 體系化시키고자 하였다.

弘文館은 世祖9년에 王室의 藏書機關으로 設置되었으며, 成宗10년에는 舊集賢殿의 職制와 機能을 完全히 吸收 繼承함으로써 名實共히 集賢殿의 後身으로 發展 強化되었다. 弘文館의 性格을 簡單히 定義하면 「掌內府經籍·治文翰·質顧問」의 官司로서 學術 文化 및 政治的인 機能을 俱有한 것이었다. 弘文館은 文治主義를 國是로 하던 李王朝의 하나의 文化的 基盤으로서 國內外의 經籍들을 蒐集 收藏하는 王室圖書館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弘文館의 機能 중 政治的인 面이 너무나 強大한 것이었기 때문에 從來의 弘文館研究에 있어서는 그 圖書館的인 面이 輕視當하기도 하였다.

前述한 바와 같이 弘文館은 成立當初에는 藏書機關에 不遇하였으나, 日就月將 그 機能들이 擴大 強大되어 李王朝의 政治·學術·文化面에 至大한 影響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다. 學術機關으로서의 弘文館은 經筵 즉 進講을 通하여 王道政治를 實現시키고자 하였고, 玉堂官員(弘文館員) 自體의 學業向上을 위하여는 賜暇讀書의 制度 등을 實施하였으며, 一般文臣들의 學業向上을 위하여는 月課制度를 管掌하였다.

王의 諮問機關으로서의 弘文館은 常參·召對·夜對 등에 入侍하여 王의 側近에서 朝政의 得失을 論陳하였으며, 國政이나 王의 處事가 正軌를 離脫한 것이라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筮疏·請對·伏閣·合辭 등의 節次를 밟아 臺諫과 더불어 或은 獨自的으로 地位와 목숨을 걸고 그야말로 「蹈斧鉞而不辭」의 氣概로서 失政의 匡正을 위하여 努力하였다.

圖書館으로서의 弘文館은 高麗朝부터 傳來된 數萬卷의 經籍들을 收藏하였을 뿐 아니라, 李朝時代에 있어서 國內外의 圖書들을 必要的 것은 모두 蒐集 收藏하였으며, 또 複製刊行하기도 하였다.

* 서울 타자 學院長